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212.736.8500(EXT 355, 384)

www.stfranciskc.org/email-stfranciskc.org@gmail.com
사무실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목)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 청년미사 : 두 번째 토요일 오후 5:45 아래 성당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ofmichael@hanmail.net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 쾰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녀원) ohanleosb@gmail.com

한국학교 stfranciskc@gmail.com

제1독서: 잠언 8,22-31

제2독서: 로마 5,1-5

복음: 요한 16,12-15

가톨릭 성가 입당: 80

봉헌: 81

성체: 82

파견: 아빠의 청춘

◆ 화답송



(후렴)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 까!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빛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빠의 청춘

- 1.이세상의 부모마음 다같은 마음/ 아들딸들 잘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멋쟁이아빠/무뚝뚝한 아빠라고 말하지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인생
- 2.이세상의 아빠들은 많고 많지만/ 마음으로 빌어주는 멋쟁이아빠/ 말쑥부린 내모습도 사랑해주는/ 우리아빠 사랑해요 제일좋아요/ 이제부터 아빠말씀 잘들을까요/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인생

“하루만 일하시는 하느님”

어릴 적엔 신부님들이 ‘하루만 일하는 남자’인 줄 알았다. 주일에만 성당에 가서 신부님을 뵈었으니 들었던 생각인데, 후에 평일미사에 가보니 신부님은 평일에도 미사를 위해 조금씩은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신부가 되고나서야 알았다. 신부는 신자들을 위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초대하는 날이다. 곧 하느님께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 인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계속 일하신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부재를 체험한다. 특히나 뜻하지 않던 불행과 고통의 순간들에 하느님께서 나를 잊으셨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한다. 혹시 하느님이 안계시거나 하루 혹은 잠시만 일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느님 생각을 거의 하지 않거나 하루만 하느님을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한 주간 나는 얼마나 하느님께 나의 일상, 기대, 계획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주 그리고 간절하게 초대하고 있는지를 반성하며 그 초대를 늘려 보자. 나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할 때까지. ♣

예수 성심 성월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응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가족
민병택 베드로	박명심 모니카
김용각	연령희, 송명자 리디아
이성범 안드레아	이상홍 스테파노
이태묘, 이영우	유희순 그레이스
유혁일	
생미사	김수진 루시아
이혜택 아가다	성모회, 양 마리아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와 그 가정	양업회
김영숙 가타리나, 김순한 루시아	양업회
김옥지 아가다, 전마지 마가렛	양업회
이재호 클레멘트, 이진자 세실리아	양업회
이중환 T.아퀴나스, 정창동 폴리나	양업회
이정주 소화데레사	양업회
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	양업회

◆ 전례봉사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6월 16일	홍민철 안젤로	백승민 안드레아	장혜윤 크리스티나	이경은 에스텔	박신희 리나	이미숙 양미숙	이기원 임유진	강호영 양미숙 이경자(울) 김효진 이경자(벨) 채봉석 안선정 김성중
6월 23일	양정윤 젼마	이한주 요한	원혜경 아네스	이경은 에스텔	김유화 데레사	박승민 최재원	한창희 이재인	박민재 박정자 김종선 김지영 이규완 이은경 이서원 김창훈

그리운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594-4963

원포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HELL'S CHICKEN
641 10TH AVE (45/46 ST), NY
212-757-1120

Shin & Associates, P.C. 신중식 변호사 사무실
백승민 변호사
Sung-Min Baik, ESQ.
212-594-4663
16W. 32nd Street, Suite 502 New York
www.lawyer-shin.com
이민법, 상법, 교통사고, 소송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노세웅
Licensed Agent-한국어 서비스
생명보험, 학자금 마련,
건강보험, 은퇴자금, Annuity, Long Term Care
201-667-7338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9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INE & WEST 8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12pm-9pm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D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KOA PRINTING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한방병원
290 MADISON AVE FL6 NY,
NY10017 (b/t 40&41st)
212.203.0072 (문자가능)
예약/문의 카톡ID: nycacu

◆ 정 기 모 임

➢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친교실 = 다미아노 홀 / 성당 밖 좌측 20m)

➢ **꾸리아**가 오늘 11시에 아래 성당에서 있습니다.

➢ **양업회**가 오늘 11시에 2층 컨퍼런스룸에서 있습니다.

➢ **경애원 후원금**은 다미아노 홀 입구에서 받습니다.



◆ 공 지 사 항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겉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면서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작자미상, 일부 발췌>

➢ 6월 성경 공부 일정

수요일 (매주)	오후 2시30분~3시45분 저녁 7시15분~8시30분	클레어 룸
매 주일 (30일 휴강)	오후 1시30분~2시50분	

➢ 첫 고백 안내

일시 및 장소 : 6월 매주일 8:40am / 아래성당 고백소
대상 : 지난 파스카 성야 때 세례견진을 동시에 받은 분들

➢ 제 37차 미동북부 지구 울드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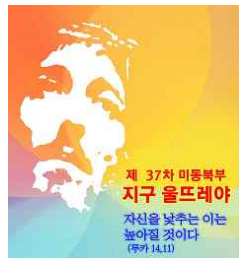
일시 : 7월 4일 9:30am ~ 4:00pm
장소 : 데마레스트 성당
(573 Piermont Road Demarest, NJ)

^ 참가비는 없습니다.

점심과 기념타올을 드립니다

^ 일반 신자분들의 참가문의는
울드레야 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본당 울드레야 '맨울짱'이 행사 2부 '우정의 무대'에
함께 합니다.



➢ 청년 성가대 성가대 단원 모집

청년성가대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성현 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 청년 성가대 반주자 모집

청년성가대 '처음처럼'과 함께 할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
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박성현 사라(카톡:
spark31)에게 연락주세요.

➢ 주일학교 교사 모집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stfrancisks@gmail.com)

➢ 미동북부 성령 대회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마태 9,29)

일시 : 7월 20일(토) 9am~9pm, 21일(주일) 9am~5:30pm
장소 : Felician University / 262 S.Main St.Lodi, NJ 07644

참가비 : \$40(토요일 점심, 저녁 / 주일 점심 포함) /

모든 참가자분들께 대회 강의녹음 USB 1개 증정

신청마감일 : 본당 성령기도회에 7월 14일(주일)까지

주최 :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문의 : 이은경 헬렌(917.921.9619)

➢ 제 30차 메주고리에 유스 페스티벌

기간 : 2019년 7월29일~8월7일(9박10일)

참가경비 : \$980+항공료

문의 : 박민재 아그네스(646.808.7322)

➢ 재속 프란치스코 뉴욕 한국순교자 형제회 회원 모집

기한 : 6월 30일까지 / 문의 : 조남록 미카엘(347.276.0163)



◆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 1,570
감사헌금	\$ 500
합 계	\$ 2,070

❖ 교무금 :

김경련 신윤길 정현숙 이영순 권엘라 김기례 유경자
이병국 최우석 김미화 나혜경 양미숙 송준석

❖ 감사 헌금 :

김호성 최진숙

"성경 맛들이기" - 사무엘기 배경 지식

I. 계약 궤



1.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

계약 궤는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였는데, 거기에는 모세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 판 두 개가 모셔져 있었다(1열왕 8,9). 그리고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당신의 계명을 알리셨다(탈출 25,22).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던 이 궤의 안과 밖, 그리고 뚜껑은 금으로 되어 있었다(탈출 25,10-22). 셈족 문화권에 있었던 유랑 민족에게는 이러한 이동 성소가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랑하던 생활양식을 감안한다면 고착되고 고정된 성소보다는 그들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성소가 자연적으로 생성되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2. 이스라엘의 유랑 여정에 동참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했던 계약 궤는 아직 정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 여정에 동참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심을 가시화해 주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도 계약 궤는 그들의 선두에 있었고(민수 10,33 이하), 전쟁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 궤는 언제나 그들의 진두에 있었다. 성경은 계약 궤가 부재할 경우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를 전하는데(민수 14,39-45), 이를 통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에도 계약 궤가 가장 선두에서 요르단 강을 건넜고(여호 3,3이하), 예리코 성을 7일간 돌 때에도 가장 진두에 있었다(여호 6,11이하).

광야 여정에 동참하던 계약 궤는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되자 실로에 모셔지는데(1사무 3,3 이하), 이후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와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계약 궤마저 강탈당하게 된다(1사무 4,10-11). 이는 계약 궤가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할 뿐이지, 고착되고 정형화된 것은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신명기적 사고에서는 계약 궤가 등장하기만 하면 언제나 이긴 전쟁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 궤를 빼앗기는 사무엘기 상권의 보도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계약 궤를 적에게 강탈당할 수 있는가?'라는 신학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결국 이러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신명기적 역사가들은 계약의 궤만 들고 나가면 만사형통이라는 다소 기복적이고 비본질적인 신앙을 바로 잡는다. 즉,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 당신과의 계약에 성실할 경우에만 그들 안에 현존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계시지 않음을, 아니 함께하시고 싶어도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속성 때문에 함께하실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빼앗긴 계약 궤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고(1사무 6장), 이후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으며(2사무 6장), 후에 솔로몬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에 계약 궤가 모셔지면서 초기 이스라엘 신앙에서 계약 궤가 가졌던 신학적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1열왕 8장).

II. 당시의 역사적 재구성(추정)

기원전

1050년경 엘리의 죽음

1040년 사무엘을 지도자로 추대

1030년 사울이 기브아에서 등극

1010년 사울이 죽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등극

1000년 다윗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

972년 솔로몬의 등극

970년 다윗의 죽음

933년 왕국의 분열